

창사 66주년에 부쳐

광주일보가 오늘로 창사 66주년을 맞습니다. 다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사시(社是: 신문사의 경영 방침이나 주장)를 되새깁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正論)을 편다' '문화 정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 개발의 기수가 된다'

1952년 6·25전쟁의 와중에서도, 정론(正論)을 펴고 문화를 창달하며 지역 개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창간된 광주일보는, 예순여섯 성상(星霜)의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지금 호남의 대표 정론지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호남 대표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숱한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험난했던 형곡(荊棘)의 길을 걸으면서도, 강한 자의 횡포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따듯이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抑強扶弱)의 한결 같은 원칙 아래, 오로지 언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 온 것만큼 감히 자부해도 좋을 듯합니다.

광주일보 66년의 역사는 그대로 대한민국과 호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6·25 한국전쟁의 수난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 사회의 대격변기를 거치며 광주일보는 겨레와 함께, 호남 지역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해 왔습니다. 오늘 광주일보의 창간일을 맞아, 광주일보가

호남 대표 언론의 위상을 곳곳이 지켜 올 수 있었음은 오로지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불과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 선거는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시장·도지사·교육감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출마 예정자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비방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혼탁과 과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과거의 그릇된 선거 관행을 철저히 배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출마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 역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광주일보도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누가 광주시장과 전남 지사가 되느냐일 것입니다. 한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

이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호남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아직은 다른 야당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 시·도지사 경선이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격렬했던 싸움도 서서히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 도지사 후보로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어제 저녁에야 비로소 김영록

되리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임 이낙연 지사가 국무총리가 되어 떠난 전남이나 윤장현 시장의 불출마로 비계 된 광주나 모두 이번에 새로운 시·도지사가 새롭게 시정과 도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다소 성급한 것 같지만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시정과 도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지사가 과거 좋은 정책들은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

나위 없습니다. 광주일보는 다가오는 6·13지방선거가 피해를 진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되살리고,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를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흔히 선거는 최악을 배제하기 위해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도 하지만, 광주일보는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보도와 심층적인 논평을 통해, 독자들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회적 공기(公器)이자 깨어 있는 파수꾼으로서, 진실을 찾는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호남이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지 않도록, 호남 사람들도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 동반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것을 다짐합니다.

요즘은 부부가 침대에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세상이라서 '종이신문의 위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와 알찬 정보로 채워진 광주일보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으로 믿습니다.

광주일보 창사 66주년을 자축하면서 그동안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 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독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운이 깃들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호남 사람들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광주 시장 경선 역시 강기정·양항자·이용섭(가나다순) 등 세 명의 후보들이 막바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오늘까지 사흘간 진행되는데, 오늘 저녁 무렵에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경선 1, 2위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결국 이날 안에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가 모두 결정되고, 이들이 본선에서도 이겨 시·도지사가

과 에너지밸리 개발,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은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방 살림을 꾸리는 단체장과 이를 견제하는 의원을 뽑는 지방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혼탁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는데, 네거티브(negative) 공방보다는 정책을 앞세우고 실현 가능한 공약이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 역시 우리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각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 경 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나는 제안한다. 한정된 것, 즉 유한한 범위에서 가만히 멈춰 서서 생각해보자고. 무한히, 정보의 바다에서 설 새 없이 밀려다지는 파도에, 동조해, 그저 휩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바 마사야의 ‘공부의 철학’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다. 저자는 철학자 질 들뢰즈의 이론을 기반으로 이 시대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인식론적 혹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나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빠르고 복잡하다. 타인의 아픔과 상처 역시 빠르게 지나간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은 각각의 상황에 어울리는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때로는 예수가 정해진 부의금과 조문으로, 때로는 슬픔에 공감하는 공통적인 표현의 댓글로. 나의 상처와 고통만 오래 남는다. 타인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안에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공격적이고 억압적이다. 한편에서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강조되고

휩쓸리지 않는 삶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마저도 압박으로 다가온다.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이에 대해 지바 마사야는 ‘중단’과 ‘한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유한성을 깨닫는 일과 시대가 강요하는 흐름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한계는 물질성에서 비롯된다.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유한성을 넘어 무한성으로 나아가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지금 타인이 방문한 장소와 맞보는 음식은 그만의 유한성에서 가능한 결과이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왜곡된 믿음이다. 이 믿음을 벗어나는 일은 어렵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는 일이다. 멈추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노동이라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유한성을 규정하는 맥락과 위상을 파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의 삶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산 속의 ‘자연인’으로 산다 해도 마찬가지다.

연결은 학연이나 지연, 혈연처럼 어쩔 수 없는 현실인 측면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시도하는 연결도 존재한다. 연결은 ‘장’(field)을 형성하면서 개인을 압박한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과 벗어나려는 사람이 있다. 연결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옥죄어 온다. 그러한 연결을 시도하는 사람은 관계를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시대는 촛불 혁명과 같은 특정 국면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무너뜨리는 온갖 지배 체제들을 견어내야 한다.

그러한 체제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개인들이 음습하고 탐욕스러운 조직을 만들고 유지해왔다. 그래야만 개인의 욕망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과정에서 겪는 피할 수 없는 진통이다. 새로운 시대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이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개별 규칙을 바꾸는 일이고, 나아가 배치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의 경험의 총합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건강한 개인들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은 ‘개인’이다. 자신이 속한 가족과 조직, 사회의 ‘시대정신’에 휩쓸리지 않는 힘을 키워야 한다. 지바 마사야가 강조하는 ‘공부’가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누리고 유지했던 것을 무너뜨리는 ‘상실의 공부’, 사회의 주류와 불화할 수 있는 ‘바보의 공부’. 우리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열심히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어딘가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잘 파악하고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의를 알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공부를 해야 할 때이다.

미래를 여는 원천, 신문을 읽자

력하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여전히 신문을 사랑한다.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영상 매체에 익숙한 젊은 독자층이 신문에서 빠르게 이탈하면서 ‘신문의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기술(IT)의 침범을 달리는 한국이 유독 정도가 심하다. 국내 인터넷 뉴스 구독률은 종이 신문 구독률을 추월한 지 오래다. 예전에는 “화장실이 있는 한 신문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번가에 앉아서도 태블릿PC를 두드리는 시대다.

뉴욕타임스 IT 전문가가 ‘파하드 만주’가 얼마 전 쓴 칼럼 ‘두 달간 종이신문만 봤더니’가 화제다. 그는 두 달간 스마트폰 뉴스 앱을 껐다. 대신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신문 3종과 주간지 하나만 집에서 읽었다. 설 새 없이 긴급 속보를 알리던 스마트폰을 끄고 나니 괴물에서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책도 읽고 더 나은 남편과 아버지가 됐다고 썼다.

온라인에선 뉴스 자체보다 논평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런 논평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킨다. 파하드 만주는 종이 신문 읽기는 외롭지만 뉴스와 직접 만나는 기회라고 했다. 스마트폰에서 쏟아내는 부정확한 정보 대신, 진짜 뉴스만 가려 전달해주는 게 종이 신문의 미덕이라고 했다. “수백 명의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서 집까지 배달해준다” 며 종이 신문의 효용성을 예찬한다.

신문을 흔히 ‘살아 있는 역사의 기록’ 또는 ‘정보의 백

화점’이라고도 말한다. 미국 CIA가 수집하는 정보도 80% 이상이 신문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신문 산업은 위기에 놓여있다. 인터넷과 영상 문화에 탐닉하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 신문 등 인쇄매체가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을 국가 과제로 삼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만 18세가 되면 1년간 무료 신문 구독권을 주고, 벨기에나 국가는 신문을 구매해 학교에 무료로 배부한다. 핀란드는 7~16세를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장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신문·방송·잡지·인터넷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그룹으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별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매일 뉴스와 논평을 전하는 신문은 균형 잡힌 비판 의식을 키우고 사고의 자율성을 향상시킨다. 신문은 읽기 문화 확산에 가장 적합한 매체로 정평이 나 있다.

신문은 잘 차려진 밥상이라고도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면은 밥과 김치, 된장찌개이다. 특집은 특별메뉴 삼겹살, 기획은 계절나물 무침과 장아찌, 어린이 지면은 메추리알 장조림 같다. 밥상만 받고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소용없다.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고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 출발한 신문들이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신문, 앞으로 신문이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無 等 鼓

프랑스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그는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며 플라톤 이래의 로고스 중심 철학을 해체했다. 또한 신과 인간, 정신과 육체, 인간과 동물, 이성과 감성, 백인과 흑인, 남성과 여성 등 상하 개념의 ‘2항 대립’ 구조는 설정 자체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모든 것을 상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상 체계를 구축했다. 해체주의 사상은 예술·문학·건축 그리고 페미니즘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해체

식민지 알제리 태생 유대인이었던 데리다는 알베르 카뮈처럼 축구 선수를 꿈꾸는 소년이었다. “어린 시절 어두워질 때까지 축구를 했다. 나는 프로 선수가 되고 싶었다.” 그는 힘을 때, 외로울 때, 차별받을 때 공을 차며 울분을 달랬다고 한다. 10대에 어두워질 때까지 축구와 함께했으니 대학 입시에 낙방하기 마련이었다. 바칼로레(대학 입학 자격고사)에 떨어지고 재수를 한 데리다는 축구보다 학문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선수의 꿈을 아쉬워하며 또 하나의 명언을 남겼다. “타자(타인)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타자(타인)’를 그리며 살아간다. 그것은 직업의 영역이기도 하고 생활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스포츠팬들 예컨대 응원하는 팀의 성적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승부는 타자(타인) 안쪽에서 일어나지만 승부에 따른 영향은 바깥쪽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관중과 팬이 없는 경기는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6·13 지방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러시아 월드컵도 이제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신태용호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중 객관적인 전력에서 가장 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종 예선에 서부터 평가전까지 잇따른 졸전에 팬들은 “투혼과 정신력이 사라졌다.” “F조에서 3천 전배할 것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대표 팀은 다음 달 은두라스와의 평가전을 갖는다. 6월 1일엔 보스니아와의 평가전과 함께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 행사를 가진다는 축구보다 학문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선수의 꿈을 아쉬워하며 또 하나의 명언을 남겼다. “타자(타인)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유재근 편집부장, 부국장 jkyou@

눈을 들어 주위를 보라 - 장애인들의 날을 맞아

우월적 지위에 근거해 교만과 권위에 찰든, 그래서 차라리 슬프도록 처량해진 모습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인의 자화상의 일면이 요즘 화두다.

매년 찾아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서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해 오다가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강한 상식적인 사람마저 배타적인 차별 속에 고통받는 현실에서 우리는 소수이자 약자인 장애인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줄

수 있을까? 플라톤에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고 부처님에게 아름다운 미녀의 욕도 통, 오줌, 가래, 고름이 가득 들어 찬 가죽에 불과하여 몸으로 생기는 탐욕조차 허망하다고 했다.

‘장애’가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저적(거저)하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도 장애라고 정의되어 왔듯이, 한갓 장애라는 이유로 보편타당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가치관 또한 장애일 것이다.

‘일어나 비추어라’라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기념 로고처럼, “모든 국민은 (중략)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의 제8번째 최고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장애인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

▲유기형·농협경주교육원 교수

기 고



송 재 빈
광주북부소방서 구급담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사회를 예견한 ‘제3의 물결’의 저자인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그가 생전에 세계를 돌며 강연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합니까?”였다고 한다. 항상 준비된 그의 대답은 “미래를 덮고 있는 커튼을 걷어내는 데 가장 커다란 원천은 신문”이라는 것이었다.

포브스지가 세계 억만장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생에서 첫 번째 직업이 신문 배달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도 어린 시절 신문 배달을 했다. 그는 최근 신문이 사양 산업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63개의 지역 신문을 거느린 미디어 제너럴을 사들였다. ‘신문은 정보의 보고’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똑똑한 신문은 거뜬히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것이란 예측이 유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지)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문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 화미디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시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